

기아차 K3 돌풍...광주·전남서 아반떼 제쳤다

기아자동차 K3가 광주·전남에서 현대 아반떼를 제쳤다. 기아차가 강세인 광주·전남지역 성적이기는 하지만 1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차가 아반떼를 꺾었다는 의미가 크다.

19일 지역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기아차 K3는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서 612대가 판매돼 준중형시장 1위를 기록했다. 이전 모델인 포르테가 월 평균 146대 팔린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이 팔렸다.

K3는 이달 들어서도 지난 16일까지 294대가 팔려 두 달 연속 광주·전남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다.

기아차는 K3의 광주·전남지역 판매 1위를 계기로 K5·K7·K9 등 K시리즈의 영업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612대 판매 준중형 자동차 1위 출시 2개월만에 전국 판매 1만대 돌파



이는 기아차가 광주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고 프리아구 기아 타이거즈의 연고지가 광주여서 지역 기업으로 인식돼 지역민들이 각별한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과 스포티지가

히트 치면서 지역에서 기아차의 비중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며 "일부 조사에서는 금호를 제치고 기아차가 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등 지역민들의 기대와 사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3의 돌풍은 광주·전남뿐만 아

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9월17일 선보인 K3는 출시 9일(영업일 기준) 만에 3616대가 팔린데 이어 지난달에는 배가 넘는 7632대가 판매돼 출시 2개월만에 1만대를 돌파했다.

계약대수도 지난 5일까지 총 2만 34대를 기록하며 출시 34일만에 2만대를 넘어섰다. 계약대수 2만대는 올해 판매 목표인 1만9000대를 이미 상회한 것이다.

K3의 인기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사양에 있다. 기아차는 이제 막 출시된 신차인데다 넓은 내부 공간, 중형차 이상에서나 볼 수 있던 다양한 첨단 옵션이 장착되면서 젊은 고객들에게 먹혀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캠코 서민금융지원 설명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본부와 광주 남구청은 19일 남구지역 16개 동사무소 통장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퀴드림론, 생계자금 소액 대출 등을 소개했다.

<캠코 광주전남본부 제공>

3200억 로또 수수료 환수訴 국가 패소

대법, 1·2심 원심 확정

3000억원대의 로또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로또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도하게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국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한영회계법인(상호변경 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로또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KLS와 유착해 운영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국민은행이 이를 잘못 검

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기관과 제주도가 공동 참여한 로또 사업은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협의회(복권협의회)'가 구성된 1998년부터 본격화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매출 추정액 등을 기초로 나온 자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를 복권 판매금액의 9.2%로 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5개 업체가 경쟁 끝에 9.5%의 수수료를 제안한 KLS가 사업권을 따냈다.

2002년 12월 로또 복권이 발행되자 예상과 달리 큰 인기를 끌었고 KLS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다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3.1%가

정적 수수료라는 답변을 들었고,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 수수료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들 근거로 정부는 KLS와 한영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4.9%로 수수료율이 바뀐 2004년 4월까지 더 받아간 부당 수수료 320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로또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고시에 따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권사업자 KLS가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 수수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한국광기술원 LED 인력 양성 전문기술교육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선호)은 LED(발광다이오드) 전기 안전과 성능 인증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8~29일 이틀간 '제3차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LED 제품별 전기 안전 및 성능 시험 관련 기업체 품질 담당자와 부설 연구소 엔지니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기술원은 전문연구진들을 강사로 ▲LED 컨버터 UL인증 개론 ▲LED 컨버터 전기 안전 시험 시연 ▲LED 광특성 측정 이론 ▲LED 조명제품 성능 시험 시연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시연 등의 강좌를 진행한다.

교육 참가자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25명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062-605-9381.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10월 무역수지 호조

2억 2100만 달러 흑자...전남 울들어 최고 수출실적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전남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10월 광주·전남의 무역수지는 수출 49억 8200만 달러, 수입은 47억6100만 달러로 2억2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까지 전체 누적 무역수지는 22억3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 누계대비 90%가 증가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전남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억 3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월 대비 9% 감소

한 11억5200만 달러, 수입은 6% 증가한 4억2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7억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동남아 미국의 수입이 증가했고, 일본, EU로부터 수입은 감소했다. 광주의 주요수출은 반도체가 전월 대비 6% 증가했지만 자동차, 가전제품과 기계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수입은 중동, 중남미로부터 수입이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수출이 전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수입품목은 원유와 철강이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코스닥 상장기업 3분기 영업이익 증가

광주·전남의 코스닥 상장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8개를 대상으로 '2012사업연도 3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누적 매출액은 268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0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115억 원에

서 188억 원으로 63.48%, 순이익은 51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146.02% 각각 늘어났다. 또 부채비율은 4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상장기업 전체 부채비율은 82.44%다. 대상기업 8개 가운데 5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나머지 3개사는 적자를 각각 보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78.10 (+17.27)
▲ 코스닥지수	493.14 (+10.15)
▲ 금리 (국고채 3년)	2.79% (+0.02)
▼ 원·달러 환율	1087.00원 (-5.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광주상의 '광주상공대상' 후보자 접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식)가 오는 30일까지 '광주상공대상' 후보자를 찾는다.

광주상공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에 헌신한 유공 인사를 발굴·표창하는 것으로, 광주상의가 올해 처음 제정했다.

광주상공대상 추천대상은 5년 이상 광주상의의 관할구역(광주·나주·곡성·담양·영광·장성·화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의 공적이 현저한 기업인이다.

시상부문은 경영우수, 고용우수, 산업평화, 기술혁신, 지역공헌 등 5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순금메달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21일 광주상의 창립 76주년 기념식과 함께 연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광주상의 홈페이지(http://www.gjcci.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객 정보 무단 조회 보험사 징계 받을 듯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보험사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점검, 일부 보험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융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보험사에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사 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심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베네, 투시랑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시공 | 내로당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 062-576-8938 · 016-885-0881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2월 1일 오픈

시공 | TODAM | 분양 및 임대문의 | ☎ 062-576-8938 · 016-885-0881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명칭: 220V, 60Hz	단독형(스토브식)난로
500 x 530 x 870	원형 치수	550 x 750 x 1050
약 65kg	제품 중량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최대 연료 소비량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최대 연료 소비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대 20kg	연료 저장량	최대 30kg
60W	정격소비전력	70W
약83㎡(구 약20~30평형)	사용 면적	약149㎡(구 약40~50평형)

연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사무실/영업장/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 기준 사용량	금액(한산)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펠릿 연료란?

목재를 연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석유 대비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문의 전화 070-4111-7823 / 010-9468-3282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